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FTA 동향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2016.01.13.)

- 중소 수출기업의 한중 FTA 100% 활용 지원 위해 조기착수 -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활용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검증대비 사전진단, 사후관리 까지 활용 전반 지원

※※ 원산지 인증수출자: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15. 12. 20.)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15년 3월)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였다.

※ '14년 기준: 대(對) 중국 교역비중(21.4%) ⇒ 대(對) 미국+대(對) EU 교역비중(20.9%)

올해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였다고 전하였다.

특히,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 대응방법 등도 지원한다.

다른 세부사항은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YES FTA 컨설팅 사업」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	FTA과	053-230-5250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 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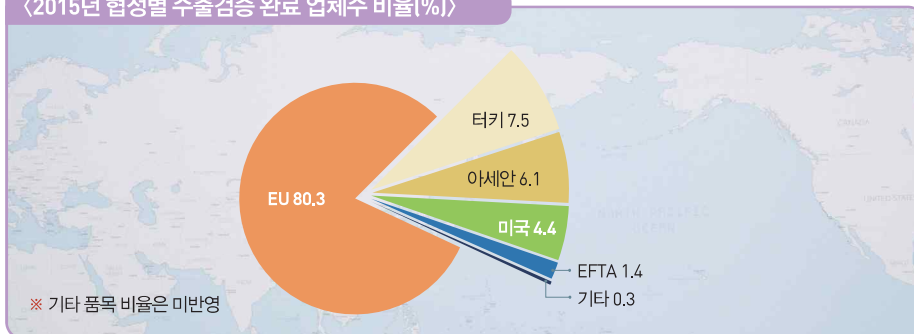
관세청 2016년 제1호 FTA원산지검증 동향 제공(2016.01.20.)

- 2015년 수출물품 검증 현황 한눈에 -

관세청은 지난 1월 20일 관세청 2016년 제1호 FTA 원산지검증동향을 발표하였다. 'Verification Statistics'에서는 검증 동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2015년 수출물품 검증 현황에서는 협정별과 품목별로 나누었고, 수입물품 검증 현황은 협정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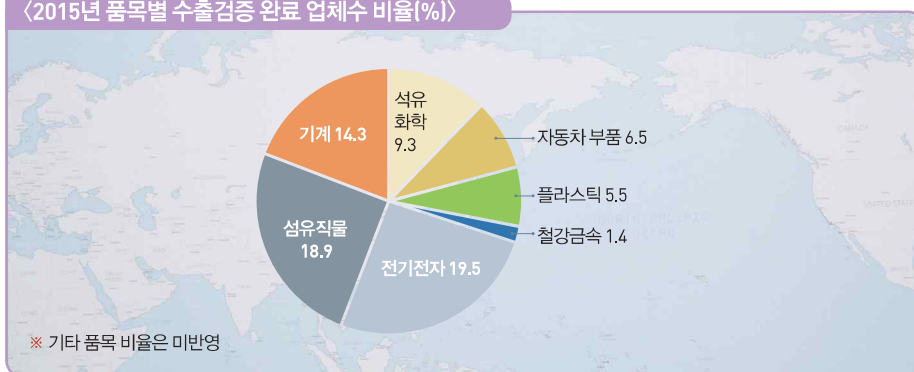
협정별로는 독일, 슬로바키아, 영국을 중심으로 EU에서 활발히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검증의 결과, 원산지 기준의 불충족, 인증수출자번호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에 여러 수출건을 동시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수출기업은 평소에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협정별 수출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또한, 품목별 원산지검증의 결과,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이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섬유·직물제품은 미국, 터키에서 검증요청 비율이 높은바, 관련 수출 기업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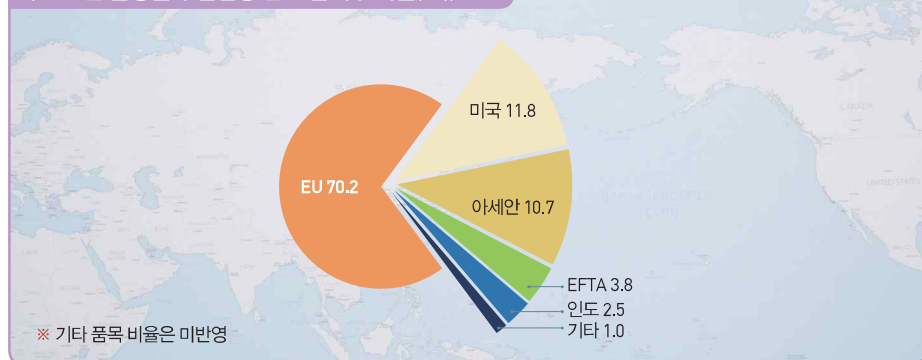
〈2015년 품목별 수출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마지막으로 2015년 수입물품의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아세안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경우 원산지검증 결과, 미인증수출자 또는 제3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한 위반 비율이 높은바, 특혜세율 적용신청 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2015년 협정별 수입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결로 기업비용 472억원 절감(2016.01.21.)

- 관세청,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작년에만 401건에 이르고, 이를 통관비용·관세 등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 원이 절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분석한 '2015년 해외통관 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 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세청이 이를 해결한 사례도 '13년 256건, '14년 358건에서 '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접수 / 해소) '13년 (395건 / 256건) → '14년 (407건 / 368건) → '15년 (444건 / 401건)

이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건, 3.6%) 등이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년 1월 통관 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15년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 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 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하고,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통관 애로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접수 건수	395	407	444	+9.1%
해소 건수	356	368	401	+8.9%
비용 절감액	2,146억 원 [※]	417억 원	472억 원	+13.2%

※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환급금(1,800억 원) 미지급 건을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해결('13.6)

〈유형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통관절차	127	32.2	99	24.3	175	39.4
FTA 원산지	98	24.8	167	41	158	35.6
품목분류	23	5.8	22	5.4	31	7.0
과세가격	50	12.7	51	12.5	16	3.6
통관지연	48	12.2	30	7.4	15	3.4
기타 [※]	49	12.4	38	9.3	49	11.0
합계	395	100	407	100	444	100

※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상 애로 등 통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 대다수

〈국가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중국	107	27.1	103	25.3	110	24.8
미국	48	12.2	60	14.7	122	27.5
베트남	57	14.4	40	9.8	50	11.3
태국	21	5.3	42	10.3	44	9.9
인도네시아	74	18.7	71	17.4	33	7.4
EU	32	8.1	27	6.6	20	4.5
일본	4	1.0	7	1.7	14	3.2
기타	52	13.2	57	14.0	51	11.5
합계	395	100	407	100	444	100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2016.01.26.)

- ‘디지털 세관’ 주제 아래 소통과 협력의 한마당 -

관세청은 1월 26일(화)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디지털 세관 : 더 나은 협력(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을 주제로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제안하여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고, 올해 행사에는 25개국 주한 외국 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인 ‘디지털 세관’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물류기업과 관련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 행정의 정확성·신속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글로벌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세수 확보’, ‘무역 원활화’, ‘우범여행자 및 위험 물품 적발’을 위해 디지털 세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관세청이 개발하여 해외에 보급 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전자정부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생산·수출품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기능 구현

한국 관세청은 지금까지 총 10개국과 3억3천6백만 불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관세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성과와 활동 내역을 홍보하고, 주한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대한 관세청의 기여와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력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대(對) 중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적극 지원(2016.01.27.)

- '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1월 27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자로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증조직 재정비 방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16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 :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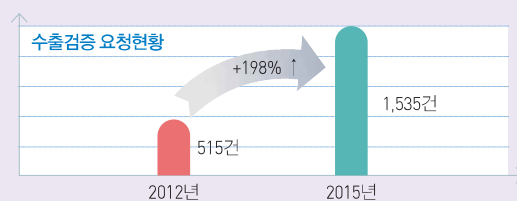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2년 차인 올해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 전체 수출 간접검증 요청 현황 : '12년(515건) → '15년(1,535건, 198% ↑)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현황〉

•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현황

	EU	아세안	EFTA	미국	터키	기타	합계
12년	460	32	23	0	0	0	515
15년	1,396	26	5	13	89	6	1,535



관세청 관계자는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올러, 낮아진 관세 혜택에 편승하여 부정·불법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하고 FTA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2016.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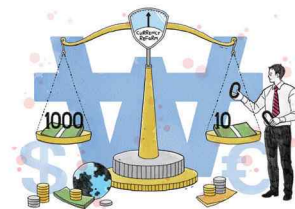
- 수출입 부진 가운데 FTA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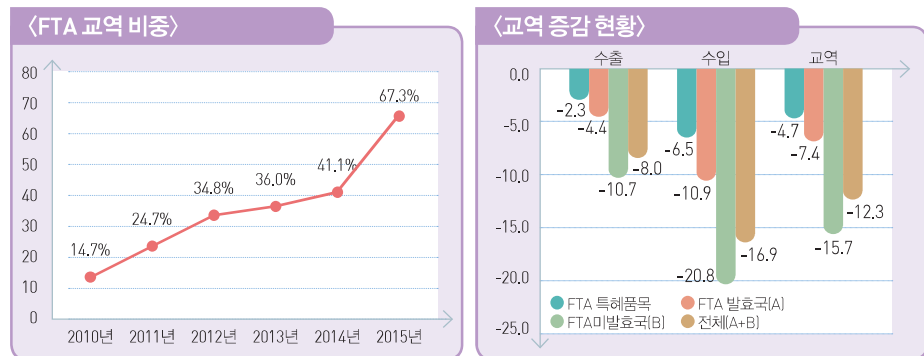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역이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감소, FTA 미발효국과는 1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15년 12월 20일 발효된 중국·뉴질랜드는 제외한 11개 협정, 49개국의 실적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5년 12월 20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FTA 확대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감소했고,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 [수출] 미국(△0.6%, 703 → 698억 불), EU(△6.9%, 517 → 481) 아세안(△11.5%, 846 → 749) 등

※ [수입] 미국(△2.8%, 453 → 440) EU(△8.4%, 624 → 572억 불), 아세안(△15.7%, 534 → 450) 등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FTA 특혜관세 품목 :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한편, '15년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14년의 69.2%보다 2.7%p 증가하였으며, 협정별로는 EU(85.3%), 페루(83.6%), 미국(79.1%)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2.5%), 인도(62.4%)는 낮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70.2%로 '14년 68.0%보다 2.2%p 증가하였다.

※ FTA 특혜관세 품목 중 수출신고서 상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된 품목 비중

관세청은 올해 한-중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를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년차, '공익관세사' 본격 운영(2016.02.15.)

-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에 105명 배치 -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월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있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는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B 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지역 ‘YES FTA 차이나센터’ 문의처〉

세관명	부서명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관세평가분류원(Quick-HS 차이나센터)	품목분류1과	042-714-7535

※ 지역별 자세한 문의처는 ‘차이나-Info’(http://china-info.customs.go.kr) ⇒ Q&A ⇒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단 하루만 발급이 늦어도 무효(2016.02.23.)

-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3일 경과여부 확인 철저 -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 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참고사항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란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하여 지난 2006년 발효하였으며, 2015년 12월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한중 FTA와 같이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섬유수출기업 FTA 지원에 앞장선다.” (2016.02.26.)



관세청, “섬유수출기업 FTA지원에 앞장선다.”(2016.02.26.)

- 관세청장과 섬유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월 26일(금) 서울 더펠리스 호텔에서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도 참석했으며,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방안 및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섬유제품 검증(전체 대비 35% 차지)에 집중하고 있고, 위반비율이 58%가 될 정도로 매우 높아 우리 상품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0여 개 섬유 기업을 불시 현장 방문하여 원사 생산자 및 제품 수출업체 모두에게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신속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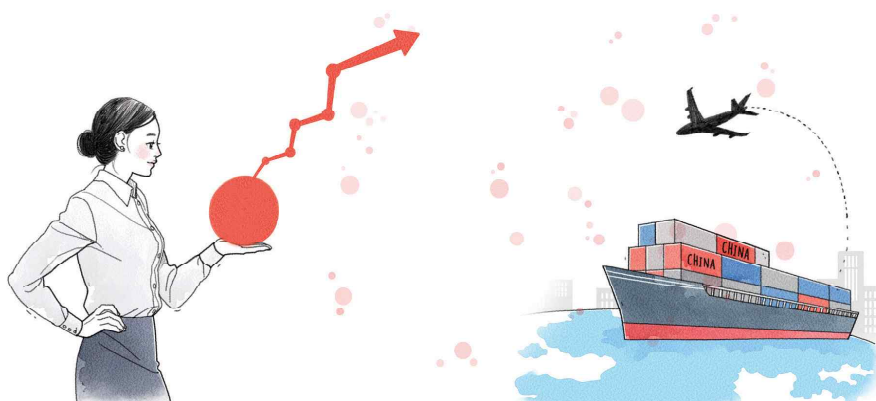
EU나 터키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 별로 까다로워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했다.

관세청장은 “FTA 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검증방식에 따른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2016.01.07.)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월 6일(수)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었다.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

공청회에서는 업계 및 일반인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효과 및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이며, 첨단기술, 농식품, 서비스 등 이스라엘과 다각적인 산업협력으로 수출 증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첨단기술에 바탕한 창업 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FTA를 적극 검토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등 각 분야 협력으로 새로운 무역기반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주요수출 품목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제품, 주요수입 품목 반도체제조용 장비, 집적회로 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

특히, 농식품*, 서비스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구축한 FTA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 종자 개량, 점적관수(소량의 물로 수확량 증대) 등 수출을 염두한 농업 선진화

공청회 제1부에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영향”과 “한-이스라엘 FTA와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각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박사가 발표했다.

연구 결과, 한-이스라엘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0.007~0.061%, 소비자후생 0.83~7.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이스라엘 농식품 무역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 농업의 수출화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청회 제2세션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및 방청객 대상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FTA 체결로 인해 첨단산업 기술 협력,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업(금융,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등) 활성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고, 전반적으로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일 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 개최(2016.01.19.)

- 2016. 1. 18(월)~19(화), 일본 도쿄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이 1.18(월)~19(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9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적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지난 12월 개최된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바, 이번 9차 한중일 FTA 수석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중·일 협상단과 함께 한·중·일 FT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국 현지로부터 듣는 ‘한-중 FTA 발효 1개월’(2016.01.21.)

- KOTRA, 한-중 FTA 조기 정착 지원 위해 ‘일일 모니터링’ 진행 -
- ‘협정 관세 적용’은 무난, ‘통관 간소화’는 정착까지 시간 걸릴 듯 -

KOTRA(사장 김재홍)는 한-중 FTA 발효 직후부터 중국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진행 중인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모니터링은 지역별 관세 적용의 적정성, 통관 효율화(신속 및 간소화)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 내 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출품목의 2차 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리 기업이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퇴세(환급)’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 신청할 경우 한-중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대체적으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통관이 준수되고 있다는 해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업체에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한의 후베이지에룽(湖北捷龍物流) 등 다수의 현지 물류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각종 통관 구비서류를 완비했다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인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자제품(가전 포함)의 경우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정착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기업과 중국 해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대행사와 수입 에이전트, 지방 해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전담반을 총괄하고 있는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내 17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기업들이 발효 2년 차 혜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하여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TRA는 한-중 FTA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대응반을 구성,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지역본부와 협업하여 현지 해관 및 수출입기업, 물류기업을 통해 현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출처 : KOTRA 보도자료

산업부, 「메가 FTA 시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2016.01.23.)

- 메가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전략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됨에 따라 해외진출 확대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2(금) 「메가 FTA 시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메가 FTA’를 키워드로 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대한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협회 담당자 및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2개의 세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 [1세션] 누적원산지 활용전략/메가 FTA 시대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방안
[2세션] 무역기술장벽과 수출전략/메가 FTA 체결의 외투여건 개선 효과 및 전망

세미나는 메가 FTA의 원산지,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말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메가 FTA의 대두로 세계적인 무역규범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무역규범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와 대응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서진교 실장은 「2016년 메가 FTA 동향과 활용」 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Vale chain: 밸류체인)의 확산, 신무역 이슈(경쟁, 노동, 환경 등)의 대두가 메가 FTA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역내 물류이동에 유리한 통관제도,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공통 투자규범을 통한 무역·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진병진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과 누적원산지 활용전략」 발표에서 메가 FTA에서의 단일·누적원산지 도입은 기업의 FTA 활용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변호사와 리인터내셔널 이광현 실장은 각각 「메가 FTA 시대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방안」과 「메가 FTA 시대 무역기술장벽과 수출전략」 발표를 통해 메가 FTA의 새로운 투자규범에 따른 위험 관리와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코트라(Invest Korea) 김연식 실장은 「메가 FTA 체결의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효과 및 전망」 발표를 통해, 메가 FTA 시대에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방안과 메가 FTA 활용 거점형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하였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메가 FTA의 추세와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키워간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업계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FTA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메가 FTA 전략 세미나」에 이어, 2월부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최근 발효된 FTA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미(2월), 인천(3월), 창원(4월) 등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1차 협상 개최(2016.01.27.)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한-에 SECA[※]”) 제1차 협상이 1.26(화)~1.28(목),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다.

※ 에콰도르 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여 양측이 SECA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FTA와 동일)

우리 측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에콰도르 측은 Humberto Jimenez(움베르토 히메네즈) 대외무역부 통상협상 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며,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총 37명의 협상단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지난 '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에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하였고, '15.12.10~11일간 예비 협의(뉴욕)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을 확인하는 세부 협상 운영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지 시간으로 1.26(화) 오전, Diego Aulestia(디에고 아울레스티아)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 참석하에 개최된 한-에 SECA 제1차 협상 개회식에서 정승일 FTA 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에 SECA를 통해 양국이 각각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40년 전 에콰도르로 첫 수출된 포니 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듯이, 한-에 SECA가 양국 수출경쟁력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원산지·통관·서비스·투자·무역구제·SPS·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SECA 협상과 병행하여 '무역·비즈니스 촉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양국 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한·에콰도르 연도별 무역 현황(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금액	438	887	887	857	920	812	641
	증가율	[△30.0]	[102.4]	[△0.1]	[△3.4]	[7.4]	[△11.8]	[△21.0]
수입	금액	10	12	31	40	48	342	262
	증가율	[△61.3]	[21.9]	[150.0]	[29.0]	[22.5]	[607.6]	[△23.6]
교역액		448	899	917	897	968	1,154	903
무역수지		428	875	856	817	872	470	378

〈2015년 한·에콰도르 주요 교역 품목(MTI 4단위기준, 백만불, %)〉

수출품목	금액	증감률	수입품목	금액	증감률
승용차	142	△25.9	원유	194	△30.5
자동차부품	109	△2.4	새우	48	14.5
휘발유	54	0.0	동괴및스크랩	9	△7.7
합성수지	45	△49.1	과실류	5	2,192.3
화물자동차	36	△29.5	어육	2	△23.5
소계	385	-	소계	256	-
전체	641	△21.0	전체	262	△23.6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현황(단위: 천불, ()는 신고건수)〉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누계
금액	272	0	23,234	25,992	765	2,464	25	106,671
건수	3	0	10	7	4	4	1	5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 FTA 지원사업 활용안내 설명회」개최 (2016.01.30.)

- 한-중 FTA 활용안내 및 전문가 개별상담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1월 29일 (금) 14:30~16:30 서울 상암 중소기업 디엠씨(DMC)타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지원사업 활용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15.12.28.)에 이어 관계부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종합설명, 6개 부처·기관별 활용지원사업 세부설명, 질의·응답, 개별상담의 순으로 진행했다.

※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코트라, 중진공, 차이나데스크 등 6개 기관

찾아가는 FTA 서비스, 현장 컨설팅, 원산지발급 제3자 확인 사업 등 각종 한-중 FTA 활용지원 사업과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지원, 중국시장 유통망 진출지원 등 각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한-중 FTA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개최(2.22~26, 샌프란시스코) (2016.02.23.)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이 2.22(월)~26(금)간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 '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규모 5위(2,098억 불), 인구규모 3위(4,350만 명)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중미는 멜빈 E. 레돈도(Melvin E. Redondo)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 중미 측 수석대표 : 파나마(산업통상부 차관 다이애나 살라사스), 과테말라(경제통합통상부 차관 엔리크 락스 팔로모), 엘살바도르(경제부 차관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코스타리카(대외무역부 차관 존 폰세카), 니카라과(산업통상부 국장 크리스띠앙 로베르토 마르띠네스 모랄레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1월까지 3차례 협상 (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 (TBT), 총칙 등 주요 장(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노동·환경 챕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기업의 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해) 협상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자유무역정책(FTA)정책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미시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대(對)중미 교역규모, 무역협회) '13년 56억 달러 → '14년 50억 달러 → '15년 41억 달러

※※ ('16년 경제성장 전망, 세계은행) 파나마 6.2%, 니카라과 4.2%, 코스타리카 4.0%, 과테말라 3.6%, 온두라스 3.4%, 엘살바도르 2.5%

〈중미 6개국 경제규모〉

구분	GDP(억불)	1인당 GDP(불)	인구(백만명)
과테말라	632.2	3,886.4	16.3
엘살바도르	256.5	4,022.5	6.4
온두라스	199.4	2,364.6	8.4
니카라과	123.2	1,965.0	6.3
코스타리카	516.2	10,671.6	4.8
파나마	474.7	11,849.7	4.0
SIECA(6개국)	합계:2,202.2	평균:5,793.3	합계: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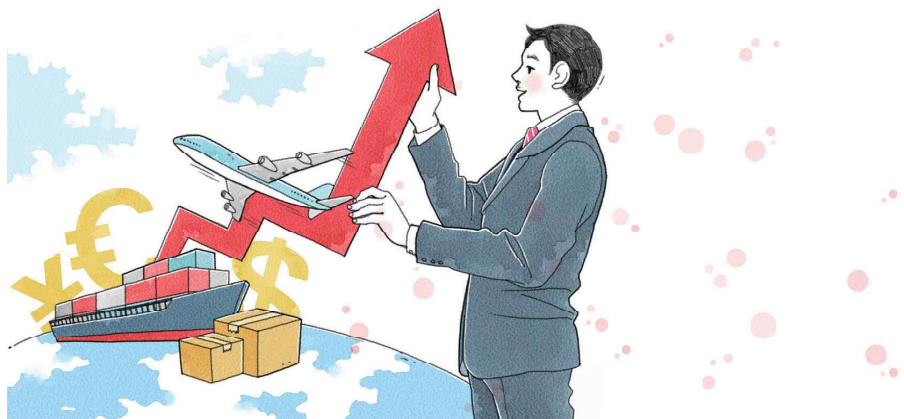
[출처: IMF, '15.10월 기준 예측치]

〈한-중미 6개국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출처: 한국 무역협회)

국가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출	수입	총교역
과테말라	320	321	641	398	162	560
엘살바도르	139	58	197	129	14	143
온두라스	115	51	166	117	55	172
니카라과	182	22	204	149	13	162
코스타리카	243	291	534	245	150	395
중미공동시장(5개국)	999	743	1,742	1,038	394	1,432
파나마	2,765	495	3,260	2,230	391	2,621
중미6개국	3,764	1,238	5,002	3,268	785	4,05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FTA 최근 동향

Ⅲ. 해외 FTA 관련 동향

우크라이나와 EU의 FTA 발효 및 러시아의 보복 조치(2016.01.05.)

유럽과 경제통합 목적으로 '14년 체결된 우크라이나-EU FTA가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른 러시아의 러-우 FTA 중단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FTA를 1년 동안 잠정 중단 선언했다.

구소련 국가 모임인 CIS*는 '11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우크라이나-EU FTA 체결로 유럽상품이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 구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정치 공동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작, 우즈베크,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 12개국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필리핀, 올해 EU와 FTA 협상 개시 (2016.01.11.)

필리핀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상반기 중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 개시 선언하였다.

현재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 중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년도 EU와의 무역수지는 약 125억 유로이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베트남 FTA 추진 가속화 (2016.01.11.)

베트남은 TPP를 포함하여 RCE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칠레와 FTA 체결 등 양자 FTA도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 개방이 필수라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으로 FTA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중국-GCC FTA 연내 마무리 합의 (2016.01.18.)

1.20(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GCC* 회원국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양자 간 FTA 협상을 곧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자원이 풍부한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 6개국으로 구성

중국-GCC FTA는 협상이 개시된 지 10년 동안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과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중동 국가들의 이해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一路)를 의미하며 2049년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개국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 형성 목표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미국-EU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올해 타결 예상 (2016.01.25.)

1.24(日) 폴란드를 방문 중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TTIP*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세계 경제의 1위, 2위를 차지하는 EU와 미국의 무역협정으로 '13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한국은 미국 및 EU와 양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TPP 정식서명, 12개 가입국 국내 비준 절차 개시 (2016.02.15.)

2.2(火)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 경제·통상 장관이 참석하여 작년 10월 합의한 TPP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고 신속한 국내 비준 절차 진행과 가입 희망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5개국 가입 희망

TPP는 서명 후 2년 내 회원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60일 후 발효, 2년 이후 12개국 GDP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 비준 절차 완료 시 60일 후 발효되므로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관건이며 미국 공화당은 11월 대선 이후 TPP 처리 방침 확정이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미국, ASEAN 회원국 TPP 참여 독려 (2016.02.15.)

2.15(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안의 TPP 참여 독려를 통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 모색하였다.

※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4개국이 TPP 참여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EU-미국 FTA TTIP 12차 라운드 협상 시작 (2016.02.29.)

2.22(月) 브뤼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12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협상은 2.26(金)까지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및 관세 철폐, 공공조달 분야 참여를 위한 공동 규율방안을 협의하였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체결 1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미국 대통령 임기 내(2017년 1월) 까지 협정을 마무리할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과 용어 이해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인 '04년 한-칠레 FTA 이후 현재는 14개국 총 51개 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특히, '15년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또한,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비준 완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발효, 비준이라는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문에서는 FTA 체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체결, 타결, 비준, 발효에 대한 용어의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 향후동향과 함께 살펴본다.



주요 용어로 보는 우리나라 FTA 체결 과정

FTA는 체결 → 타결 → 비준 → 발효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FTA 체결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가 간 FTA를 체결할 것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가 양국 간 체결되면, 타결(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과 국회의 확인절차(비준)를 거친다. 이때 FTA의 체결에서 발효까지 기간은 협정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는 '14년 11월 베이징에서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15년 12월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반해 얼마 전 FTA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경우 '07년 4월 공식 협상 발효 후 '12년 3월 FTA가 발효되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측의 FTA 비준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대기 중이며,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표 1. FTA 용어설명〉

구분	용어 설명
체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당사국에서 체결할 것에 서명한 것
타결	협정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인정하여 시행을 준비하자는 것
비준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합법상 조약체결권자)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발효	위 조약을 본격시행하는 일자, 즉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 법률이나 조약의 시행 공포일을 말함

우리나라 FTA 추진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서 살짝 비껴가 있었다. 이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상품관세 철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후 올해까지 매해 1건 이상의 FTA가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ASEAN과의 FTA는 완료된 상태이다.

〈표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구분	상대국	발효시점(국회비준일)	의의
발효 (14건 51개국)	칠레	04.04.0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6.03.02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06.09.01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10개국)	07.06.01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13년 기준)
	인도	10.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11.07.01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12.03.15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13.05.01	유럽·중양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14.12.12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15.01.01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14.12월 기준)
	중국	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14년 기준)
타결(1건 1개국)	콜롬비아	14.04.29 국회비준(우리측)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리나라 FTA 향후동향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수출입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양자 간 FTA에서 REC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와 신흥국가인 중미 FTA도 추진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OECD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의 FTA 역시 지난 1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마무리된 상태이나, 우리나라 FTA 체결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저변을 넓히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FTA 협상진행 및 협상재개 여건조성 국가〉

구분	상대국	진행현황	의의
협상진행	중·일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 선언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협상 개시 선언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위상 제고
	중미 (6개국)	2015년 7월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	중미 신시장 진출
	에콰도르 SECA	2015년 2월 한-에콰도르 FTA 추진 가능성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협상재개 여건 조성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		

※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RCEP:중국, 한국,일본, 인도,호주, 뉴질랜드,ASEAN(10개국)

